



그리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감리업계의 민원에 순응하여 공사감리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전력기술발전을 위해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및 민간대행업 제도 폐지에 적극 대응하고 여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회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COEX 태평양홀에서 “제3회 국제전력전자 및 전기 설비전”을 개최하였으며 본 전시회 장면이 KBS, MBC TV에 방영됨으로써 관련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협회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어, 내년에는 국내 굴지의 업체는 물론 해외 업체 참가를 적극 유치하는 등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건립에 여기 참석하신 원로선배님과 전·현직 임직원, 지회장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지난 9월 서울 서당 전철역 인근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회관으로 사용하고자 매입하게 되었으며, 내년에 협회 사무실을 새로 매입한 회관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본인이 회장에 취임하여 협회 운영지표로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는 “회원이 주인인 협회”, “사랑과 봉사의 협회”, “깨끗하고 힘있는 협회”는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더욱 헌신·봉사해서 우리나라 모든 전기인들이 우리 협회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타의 모범이 되어 표창을 받은 직원에게 다시한번 축하하며, 바쁘신 중에도 협회 창립 9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참석해주신 원로선배님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희평 회장